



수원시 저출생 동향과 대응방안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yalee@suwon.re.kr

최고훈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ghchoi@suwon.re.kr

요약

Ⅰ 최근 5년간('19~'23) 경기도 주요 도시 저출생 및 혼인 현황

- 수원시에 가임 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나 지속 감소, 화성시는 지속 증가 추세
- 수원시 출생아 수를 화성시가 추월했으며 지속 감소, 화성시는 '23년 소폭 상승
- 수원시의 합계출산율은 경기도 주요 도시 중 최하위 수준('23년 기준 0.68명)
- 경기도 주요 도시의 혼인건수는 수원시가 가장 많음(수원)화성)용인 순)

Ⅱ 수원시민 저출생 원인 및 육아휴직자 현황

- 저출생 원인 1순위, 남녀 모두 '자녀양육의 부담' 응답(남성 30.7%, 여성 33.9%). 2순위는 성별 차이(남성 '주거비 부담' 21.9%, 여성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22.3%)를 보임('22년 기준)
- 수원시 육아휴직자 지속 증가, 구별로는 영통구(7,378명)가 가장 많고 장안구(584명)가 가장 적음
- 육아휴직자 성비 차이는 팔달구(5.4배)가 가장 크고, 영통구(2.6배)가 가장 적음

정책제언

Ⅰ 수원시 인구구조 및 수원시 특징을 활용한 신규 정책 개발

- 구별 거주 인구의 연령별 구조 및 연령별로 필요한 양육 지원 정책수요 선제적 파악
-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자원(예: 지역별 산업·문화·교육자원) 파악 및 시민의 수요와 자원을 결합하는 정책 시행 검토

Ⅱ 개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 강구

- 수원시는 출산 관련 현금성 급여 및 출산 이후 산모·아동에게 현금 또는 서비스를 지원
- 일본의 반주형(방문과 면담을 통해 가사·육아 멘토링 및 직접 지원 서비스 제공) 정책 및 미국(정신건강 서비스), 독일(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스웨덴(미디어 교육)의 사례를 참고하여 양육 지원 정책 개발

1 수원시 저출생 현황 분석

1) 가임 여성 수 추이

□ 5년 간 경기도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수원시에 가임 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수원시의 가임 여성 수는 2019년 314,067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23년 기준 295,370명임

□ 대부분 도시의 가임 여성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화성시만 가임 여성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2019년 수원시의 가임 여성 수는 수원(314,067명), 용인(268,340명), 고양(267,358명), 성남(240,416명), 화성(202,602명) 순이었으나, 화성시의 가임 여성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23년에는 수원(295,370명), 용인(256,514명), 고양(250,506명), 화성(231,598명), 성남(218,006명) 순으로 변화하였음

<가임 여성 수>

(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2019~2023), 주민등록 연앙인구(당해년 평균인구 개념) 15~49세 여성인구 추출, KOSIS DB웹서비스

2) 출생아 수 추이

□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 주요 도시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수원시는 2019년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으나, 2020년대 들어 화성시가 추월하였음

- 2019년 경기도 주요 도시 출생아 수는 수원시(7,950명), 화성시(7,507명), 용인시(6,757명), 고양시(5,707명), 성남시(5,603명) 순으로 나타났음
- 수원시의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여 2020년부터는 화성시의 출생아 수가 수원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 경기도 주요 도시 출생아 수는 화성시(6,738명), 수원시(6,245명), 용인시(5,215명), 고양시(5,169명), 성남시(4,518명) 순으로 나타났음

<출생아 수>

(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2019~2023), 주민등록 연앙인구(당해년 평균인구 개념) 0세 인구 추출, KOSIS DB웹서비스

3) 합계출산율 추이

□ 2023년 기준 수원시의 합계출산율(0.68명)은 경기도 내 주요 도시에서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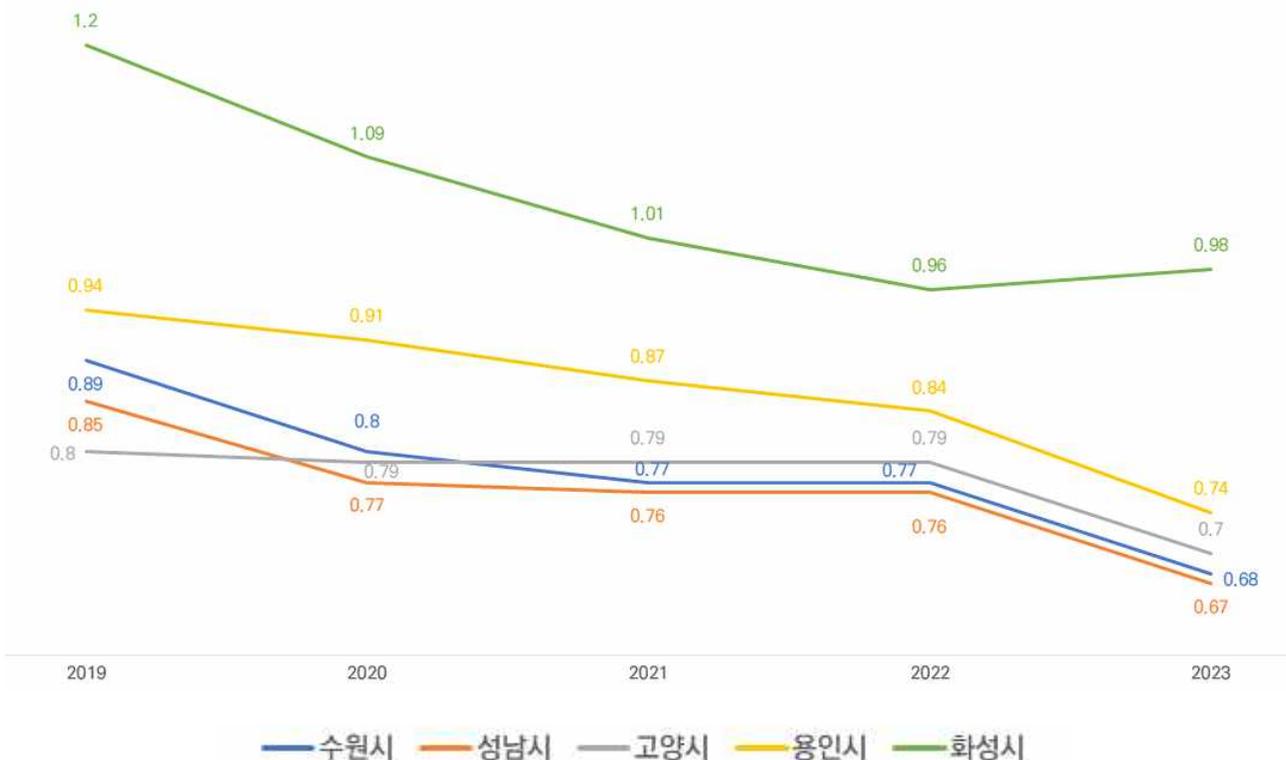
- 합계출산율은 가임기인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출산력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며, 국가 간 출산력 수준 비교 시에 자주 활용되는 지표임
- 2019년 수원시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화성시(1.2명), 용인시(0.94명) 다음으로 높았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며 2023년에는 고양시(0.7명)보다 낮아져(수원시 0.68명) 주요 도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게 됨

□ 2019년부터 경기도 주요 도시는 극단적인 저출생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경기도 주요 도시 중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은 화성시는 2019년 합계출산율 1.2명에서 2022년까지 지속 감소하다 2023년 소폭 상승하여 0.98명으로 나타남
- 화성시를 제외한 4개 주요 도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8 미만으로, 용인시(0.74명), 고양시(0.7명), 수원시(0.68명), 성남시(0.67명) 순으로 나타났음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가임 여성 1명당))



자료: 행정안전부(2019~2023), 인구동향조사, KOSIS DB웹서비스

주: 합계출산율: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4) 수원시 혼인건수 추이

□ 경기도 주요 도시의 5년 동안 혼인건수는 수원시, 화성시 순으로 많음

□ 코로나19 기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의 혼인건수가 감소하였다가 2023년 들어 회복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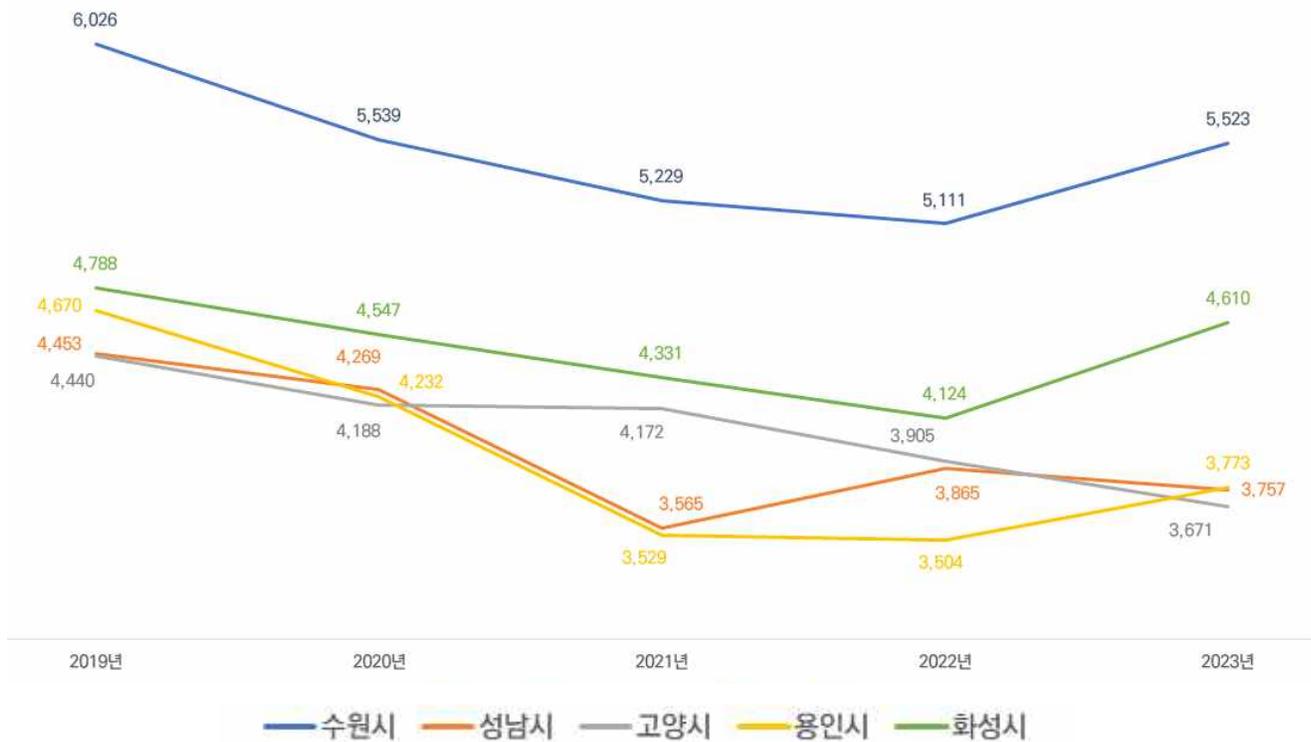
- 수원시의 혼인건수는 2019년 6,026건에서 2022년 5,111건까지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5,523건을 기록하였음

□ 반면 성남시와 고양시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와 달리 2023년에도 이전의 혼인 건수를 회복하지 못하여, 두 도시 모두 경기도 주요 도시 중 혼인 건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혼인건수>

(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2004~2023), 혼인건수, KOSIS DB웹서비스

5) 수원시민 결혼에 대한 견해

□ 2022년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중립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수원시민의 결혼에 대한 견해를 성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여성은 남성(38.0%)보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6.5%로 월등히 높음
-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인 '하지 않는 것이 좋다'(남성 3.5%, 여성 5.0%)는 응답과 '하지 말아야 한다'(남성 0.5%, 여성 1.3%)는 응답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여성의 응답은 2018년 43.0%에서 2022년 46.5%로 증가, 결혼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여성의 응답은 2018년 14.4%였으나 2022년에는 11.5%로 감소하였음

<수원시민 성별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2018	전체	100.0	16.4	34.6	40.7	4.5	2.2
	남성	100.0	18.4	35.8	38.5	3.6	2.6
	여성	100.0	14.4	33.5	43.0	5.3	1.8
2022	전체	100.0	13.9	36.5	42.3	4.2	2.3
	남성	100.0	16.2	38.9	38.0	3.5	2.9
	여성	100.0	11.5	34.0	46.5	5.0	1.7

자료: 수원시(2018, 2022),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사회조사 조사 중단 및 보고서 미발간

2 수원시민 저출생 원인 및 육아휴직 현황

1) 수원시민 저출생 원인

□ 2022년 여성의 경우 저출생 원인으로 일가족 양립 여건 및 자녀양육 문제를 지적함

- 2022년 수원시민은 저출생의 원인에 대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남성 17.8%, 여성 22.3%), '자녀양육의 부담(교육비 포함)'(남성 30.7%, 여성 33.9%) 등으로 응답하였고, 남성은 여성보다 '주거비 부담(비싼 주택가격 등)'(남성 21.9%, 여성 14.6%), '직장 불안정 또는 일자리 부족'(남성 12.5%, 여성 11.9%) 등의 응답이 높았음
- 여성이 저출생의 원인으로 가장 높게 응답한 '자녀양육의 부담(교육비 포함)'은 2018년 31.2%에서 2022년 33.9%로 증가하였고,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라는 응답 또한 12.2%에서 14.4%로 증가함
- 남성은 '주거비 부담(비싼 주택가격 등)'이 2018년 12.6%에서 2022년 21.9%로 대폭 증가하였고,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응답도 13.3%에서 14.6%로 증가하였음

<수원시민 성별 저출생의 원인>

(단위: %)

구분	계	직장 불안정 또는 일자리 부족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주거비 부담 (비싼 주택가격 등)	자녀양육의 부담 (교육비 포함)	초혼 연령 상승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기타	
2018	전체	100.0	17.4	24.4	11.5	30.7	3.1	12.7	0.1
	남성	100.0	18.9	22.0	12.6	30.2	2.9	13.3	0.2
	여성	100.0	16.0	26.9	10.4	31.2	3.3	12.2	0.1
2022	전체	100.0	12.2	20.0	18.2	32.3	2.6	14.5	0.0
	남성	100.0	12.5	17.8	21.9	30.7	2.4	14.6	0.1
	여성	100.0	11.9	22.3	14.6	33.9	2.9	14.4	0.0

자료: 수원시(2018, 2022),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사회조사 조사 중단 및 보고서 미발간

2) 수원시민 육아휴직 현황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원시민 전체 육아휴직 순지급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2023년 기준 수원시 내에서 영통구에 가장 많은 육아휴직 순지급자가 있음

- 영통구(7,378명) 다음으로 권선구(1,070명), 팔달구(800명), 장안구(58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성별로 비교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더 많이 받고 있음

- 2023년 기준 팔달구 여성의 육아휴직 순지급자 수가 남성보다 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팔달구 다음으로 육아휴직의 성비 차이는 장안구(4.5배), 권선구(2.8배), 영통구(2.6배)로 나타났음

<수원시민 육아휴직 순지급자 수>

(단위: 명)

구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안구	전체	519	549	609	574	584
	남성	86	87	97	104	106
	여성	433	462	512	470	478
권선구	전체	673	802	905	985	1,070
	남성	122	178	184	262	283
	여성	551	624	721	723	787
팔달구	전체	608	663	655	734	800
	남성	69	73	72	106	125
	여성	539	590	583	628	675
영통구	전체	6,136	6,539	6,765	7,135	7,378
	남성	963	1,283	1,485	1,902	2,047
	여성	5,173	5,256	5,280	5,233	5,331
수원시	전체	7,936	8,553	8,934	9,428	9,832
	남성	1,240	1,621	1,838	2,374	2,561
	여성	6,696	6,932	7,096	7,054	7,271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9~2023), 고용행정통계

3 정책 제언

□ 수원시는 가임 여성 수 및 혼인건수가 가장 높았지만,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낮게 나타남

- 경기도 주요 도시 중 2023년 기준 출생아 수는 화성시보다 낮고, 합계출산율은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보다 낮음

□ 성별 결혼과 저출산 인식의 차이에 따라 양육 및 돌봄 현황 확인 및 대응 필요

-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중립 혹은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경제적인 원인보다 일가족 양립 여건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
- 수원시 육아휴직 순지급자 수 또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2023년 기준 팔달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5.4배 많음), 여성의 양육 및 돌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 필요

□ 수원시 인구구조의 특징 및 수원시 장점 등을 활용한 신규 정책 개발 필요

- 수원시 구별 거주하는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파악하고,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각 연령별로 필요한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 필요
- 아울러,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자원(예: 지역별 산업자원, 문화자원, 교육자원)을 파악하여 시민의 수요와 자원을 결합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수원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 및 시행 고려

- 수원시는 출산과 관련하여 현금성 급여 지급 및 출산 이후 산모나 아동에게 현금 혹은 서비스를 지원 중인데, 일본사례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주형(직접 방문하고 면담해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멘토링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 수행) 정책이 증가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육아와 가사 지원뿐 아니라 미국, 독일, 스웨덴 사례에서와 같이 정신건강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미디어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음

<국외 주요 양육 지원 정책>

지역	구분	주요 사업
일본	• 임신 출산 지원 • 일·가정 양립 • 양육 지원	•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 출산·육아 응원 기프트 지급 사업, 산부인과·소아과 온라인 건강 상담 • 가사/육아 서포터 사업 • 육아 지원 도우미 파견 사업
미국	• 아동 청소년 지원	• 미국 최초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 설립에 2천만 달러 지원
독일	• 유아교육/보육 • 돌봄	• 2023년 6월까지 독일 연방정부가 6,000개의 “언어-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이후 지방정부가 지원 • 초등학교 종일반 돌봄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등
스웨덴	• 유아교육/보육	• 독서량의 증가와 스크린타임의 감소를 위한 학습 도구 선택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등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2023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 참고문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9~2023). 고용행정통계.
관계부처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수원시. (2018, 2022).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2024). 2023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행정안전부. (2019~2023). 주민등록 연안인구.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